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4월 15일(화) 제 3076호

전주시, ‘걷고싶은거리’에 포켓주차장 웬 말?

미디어센터 건립 등 84건 사업 확대키로

보행특화거리 지정 후
인도 노상주차장 추진
교통사고 위험 도사려
상인 주차 할인권 도입
“시, 시민과 약속 지켜야”

“도시 공간의 주인이 사람인가, 자동차인가.”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완산구 충경로 보행환경특화거리 인도 위 노상에 포켓주차장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을 사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보행자 친화거리 조성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고, 교통 사고 위험을 키우는 인도 위 노상 주차장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런 도로 상가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주차장이나 주차할인권 도입 등 대체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전주시는 2022년부터 총 184억 원을 투입해 ‘충경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0월 준공, 개통후 걷고싶은 거리로 재탄생했다.
당초 충경로 도로환경개선 사업은 민선 7기 김승수 전 시장이 원도심 대표 거리인 충경로를 사람과 문화로 채우는 차 없는 사람의 거리로 만들겠다는 ‘충경로 문화거리 기본구상’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최근 인근 상가의 활성화 등을 위해 이곳 충경로

인도 노면위에 36면의 포켓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현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이동식 대형 화분을 설치했는데 그 간격이 3M이다. 만약 먹으면 언제든지 주차차가 가능하다. 대체 주차 공간은 이미 존재한다.
앞서 전주시는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그린뉴딜 안전속도 5030 시범 도로 조성사업’을 신청했다가 ‘보행환경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변경해서 2020년 10월 공모에 선정됐다. 실제로 전주시는 2021년 2월 22일 충경로와 충경로 일원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까지 했다.
이 고시문에서 “사람 중심, 보행자 중심 정책 시행에 따른 대응과 한옥마을의 보행권역을 확대해 전주만의 특별한 문화보행 도로로 조성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 보행축 형성”이라는 지정 필요성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주시는 충경로를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도심을 재구성하고, 보행자 안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대표적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로 추진되었다.
이와 관련 전북환경운동연합측은 “전주시와 우범기 시장은 행정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고, 보행자와 자전거, 문화가 공존하는 거리, 교통사고 걱정 없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전주시는 보행자 중심 거리로 재탄생한 충경로 인도 위에 주차장



‘사람 중심’ 거리에 주차장 조성

전주시가 완산구 충경로 보행환경특화거리 인도 위 노상에 포켓주차장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을 사고 있다. 사진은 포켓주차장 조감도.
<사진=전북환경운동연합>

을 만드는 ‘스마트포켓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경로 객사 구간(옛 민중서관~다과고) 26면, 충경로 동부시장 구간(풍년제과~병무청 오거리) 10면 등 총 36면의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 CCTV 관제 시설비로만 무려 5억 3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측에 따르면 차로 폭을 줄여서 넓힌 인도 위에 주차장을 만드는 포켓 주차장은 차량 이용을 권장하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 사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인도를 넓혀서, 가로수와 정원을 만드는 시의 도시 숲 조성

사업에도 맞지 않는다.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로 체계 바꾸겠다는 기린대로 전주형 BRT 사업과도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충경로 어떤도로에는 사실 주차장과 종교시설 주차장이 다수 존재한다. 일부 시간을 제외하고는 주차 여유 공간이 충분하다. 상가 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인도 위 포켓 주차장이 아니다. 필요한 건 ‘공간 확대’가 아니라 ‘공간 공유’이다. 주차 할인권제도 도입, 사회 협약을 통한 공유 주차장 운영 등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은 얼마든지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는 “왜 우범기 시장은 가장 손쉬운 ‘도로 위 주차’만을 선택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36면의 포켓 주차장이 라고 강조하나 인도 위에 차를 세울 수 있게 되면 주차 공간이 아닌 인도에도 많은 차량이 주차를 시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주시와 우범기 시장은 행정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고 보행자와 자전거, 문화가 공존하는 거리, 교통사고 걱정 없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정재근 기자

전북특별법 1분기 점검

전북자치도는 ‘2025년 1분기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보고회’를 열어 지난 3개월간 추진된 특례별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14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는 특례를 실제 사업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월 본격 시행된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과 75개 특례 과제 중, 올해 53개 특례가 실제로 시행에 들어갔고, 22개 특례는 실행 준비가 착실히 진행 중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도는 이 가운데 총 42개 주요 특례를 중심으로 약 9,400억 원 규모 ‘영산문화유산 산업 진흥지구 조성, 전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 등, 84건의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주요 성과로는 지난 3월, 새만금 고용특구 내 일자리 종합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일자리 지원단’ 출범과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특례를 추진할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개소가 대표적이다.
또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2025년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을 비롯, 탄소중립체험관 개선사업 등 다양한 특례 기반 공모사업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례 실행의 법적 기반도 탄탄히 다졌다.
도는 특례 실행을 위한 조례 제·개정 56건 중 46건을 이미 완료했으며, 나머지 10건도 연내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특례에 따른 실증센터 구축방안 연구용역도 마무리되어, 향후 후속 사업 연계가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특례별 공모 대응 및 사업화 전략을 강화하고, 재정지원과 지구지정, 관련 시책 간 연계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가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며 “도민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김경수 양자대결

경선률 당원50% 여론50%
김두관·김동연 불출마
선출규정 전당원 투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전당원투표를 통해 대선후보 경선률을 100% 국민경선 선거인단에서 ‘권리당원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로 바꿨다.
민주당 경선관리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앞서 현행의 대선후보 선출방법을 국민경선경선에서 이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특별당규인 제21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규정’을 제정키로 하고, 전당원 투표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같은 민주당의 대선후보

선출기준 변경에 따라 그동안 대선 출마가 유력했던 김동연 경기지사가 반발하면서 불출마 입장으로 돌아섰고, 김두관 전 의원도 불출마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앞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재명 전 대표 간의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1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완전국민경선) 우리 민주당의 원칙이자 전통이다. 이 규칙으로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며 “이런 원칙과 전통이 지금 파괴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지사의 캠프 관계자도 “경선 룰이

이렇게 정해지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틀러리 밖에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같은 경선률 변경에 반발하면서 경선 불참을 검토하고 있는 등 경선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김영록 기자



道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 선정

국비 38억 확보 바이오육성 2029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40% 이상 수직농장 개발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K수직농장 세계화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8억 원을 확보했다.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는 수직농장 관련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도는 ‘상가·공장·폐교 등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수직농장 모델 개

발’ 과제를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직농장(vertical farm)은 다단재배 실내 공간에서 작물을 키우는 차세대 농업 모델로, 자동화된 시스템과 고도의 환경조절 기술을 통해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농업의 대표 사례이다.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4년 9개월간 진행된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이 기존 수직농장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 40% 이상을 달성하는 수

직농장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 소재용 작물의 자율재배 기술 실증을 통해 다양한 수직화 모델도 발굴, 수직농장 산업의 확산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컨소시엄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외에도 한국식품연구원, 캠틍종합기술원, 원광대학교,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농심, ㈜에스에스엘이 함께 참여한다.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은 도와 남원시가 추진 중인 ‘첨단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사업’에 적용될 예정으로, 수직농장 시스템은 전북자치도의 바이오 융합 생태계 성장

을 위한 핵심 기반기술로 활용된다.

도는 앞으로 수직농장 자율재배 플랫폼을 기반으로 ‘그린바이오 기반 신소재 육성 지원센터’를 구축해, 바이오소재 원료의 재배기술 최적화와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윤세영 전북자치도 바이오방위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은 전북의 미래 농업과 바이오 융합 산업을 연계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바이오소재 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김대중 도의원 “도 산하 공공기관 ESG 경영 적극 추진해야”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북연구원·군산의료원 등 이달말 본격 시행

전북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 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이달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의회와 김대중 의원 등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4월 하순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전북여성가족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

개발공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전북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정했다.

김의원은 “ESG 경영은 탄소저감과 사회공헌, 그리고 투명하고 평등한 조직구조 등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도내 기업들도 ESG 경영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내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다른 여러 기관 및 기업의 공익 실현이 보편화, 일상화 된다면 지



김대중 도의원

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인증과 포상 등이 다.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는 ESG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분

야별 전문가 컨설팅 및 법률 상담, 홍보 및 교육, ESG 경영 우수 공공기관의 발굴 및 홍보, ESG 행정 도입 및 확산 관련 사업 등이다.

한편 ESG는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약자이다.

쉽게 말해 ESG 경영이란 기관 또는 기업이 재무적인 이익만을 경영의 목표와 과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인 친환경경적 고려, 사회적 책임의 실천,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조직구조에 대한 부분을 경영의 한 축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정재근 기자

윤준병 의원, 근로감독 권한 시·도지사 공유법 대표 발의

근로감독관 1명, 662개소 사업장 관리 인력부족 등 산업환경 악순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는 내용의 ‘근로감독 권한 시·도지사 공유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기준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근로감독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제가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조건에 실제 사업장에서 제대로 보장·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으로, 관리·감독행정의 수행자인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작년 기준, 근로기준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윤준병 의원 3,035명으로, 근로감독대상 전체 사업장이 200만 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감독관 1인당 약 662개소를 담당해야 해 고용노동부의 감독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역량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사후처리에 급급한 근로감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

감독체계에 대한 ‘혁명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근로감독체계의 개선방안으로서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방안을 앞장서서 추진해왔다.

윤 의원은 오늘 근로조건에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기저에는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 문제를 비롯해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땀방식 대책이 깔려 있다”며 “오늘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근로감독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진보당 전북도당, 내년 지선 원포인트 개헌 찬성 58.7%

국민 73.8% 개헌 필요 공감 이념 성향 무관 찬성하고있어

진보당 전북자치도당은 14일 2026년 지방선거 개헌 실시 명시의 원포인트 개헌 찬성이 58.7%로 나타났으며 여론조사 결과 개헌 필요성에 국민 73.8%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기대선과 대선과 동시에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헌법 부칙에 명시하는 원포인트 개헌’ 찬성 또한 58.7%로 높게 나왔다고 소개했다.

진보당은 “대선 시기 개헌을 공약했다가 막상 집권하면 유야무야 됐던 몇 차례 경험에 또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표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으로 개헌 논쟁이 촉발됐다가 민주당 내부 논란으로 철회 하는 등 우여 곡절을 겪고 있지만 국민들 다수는 개헌 관련 구체적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당 광주광역시당이 12일 코리아인사이드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704명을 대상으로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세부적으로는 헌법 개정 필요성에 필요 73.8%, 불필요 22.9%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개헌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두루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한다는 것을 헌법부칙에 명시’하는 원포인트 개헌에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58.7%, 반대는 33.5%로

나타났다.

헌법 부칙 개정 없이 개헌 국민투표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6.3 조기대선 36.9%, 2026년 지방선거 30.6%, 2028년 총선이 23.8%로 나타났다.

이에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개헌의 시기, 방법 등에 대해 당리당락이 아닌 다수 국민 뜻을 받들어 추진할 것”을 각 정당에 촉구한다.

※ 이번 조사는 진보당 광주광역시당이 코리아인사이드에 의뢰해 4월 12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7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로 휴대전화 무작위임의추출(RDD)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은 2.6%다.

/정재근 기자

국힘, 주 4.5일 근무제 도입 공약 반영

금요일 오전 근무 후 퇴근 52시간 근로제 폐지 추진

국민의힘은 14일 유연 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대선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며 단순히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을 중심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으로 제안된 국민여러분들의 정책 중 유연근로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근무제를 소개한다”며 “우리가 정책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 중구청은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도 금요일 오후에 휴무를 가질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시범 실시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시간 외에 시간 쉼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라면서 “다만 업무 공백을 막고 시민에게 기존과 같은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

원의 25% 범위 내에서 모든 직원들이 순환방식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총 근무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며 “이는 기존 주 5일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벨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일제 및 4.5일제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되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며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받는 급여도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라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교 설명했다.

그는 “산업현장에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반대로 일이 적을 때 충분히 쉴 수 있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주 52시간 규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산업 분야를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유연근로제를 적극 활용해 산업별, 직무별,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근무형태가 가능한 선진형 근로문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작년과 올해 농지를 매도하셨나요?

농지를 “매도” 하셨다면 추가로 농지이양 은퇴직불보조금 받아보세요!!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이 농업인 또는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경우
최장 10년간 최대 매월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1. 매도(분할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매월 50만원씩 지급
2. 매도(일시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50만원 x 지급기간 x 지급률 * 경작이용농지 1,000㎡ 미만인 경우만 기입가능, 약정 지급 기간별 최대 30%차감
3. 매도 조건부 임대 농지연금 + 농지임대료 + 농지 매도대금* + 1ha당 매월 40만원 지급 * 농지연금 채무액 제외

※ 1번과 3번 유형 선택 시 경작 허용 농지*가 1,000㎡ 이상 3,000㎡ 이하의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차감 후 지원됩니다.
* 경작허용농지란? 약정채결 이후에도 계속 소유 및 경작(자경·임대)이 가능한 농지

면적별 지급상한

매도
최대 월 200만원 (4ha기준)
*10년 기준 총 240백만원(분할지급) / 총 168백만원(일시지급)

매도 조건부 임대
최대 월 160만원 (4ha기준)
*10년 기준 총 192백만원(분할지급)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국농어손공사 익산시차
063-860-0043

※ 자세한 가입조건, 지급금액 등은 신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1577-7770

국민연금공단-대학-복지 3각 상생 협력

지속가능 연금정책 모색
학술복지 연계 공동 추진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확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국민연금연구원원은 '상생의 국민연금 구현,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대학의 실천력 배양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연금연구원, 국제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법인 한국미래복지재단 동근세상' 등이 참석했으며 체결은 지난 11일 수원시 소재 국제사이버대학에서 진행했다. 설립 30주년을 맞은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금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상생의 국민연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했다.



국민연금연구원, 국제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법인 한국미래복지재단 동근세상이 지난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공단은 연구원-대학-사회복지법인 간 3각 협업(Co-work)을 통해 연금제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대학과 함께 △

핵심역량강화 특강을 통한 학술적 연구 및 교육과정 지원 △연구원 30주년 기념행사 등 공단의 공식적인 대내·외 행사지원 △노인복지전문가 양성을 추진한다.

또 공단은 사회복지법인과 협력해 △공단본부 및 전주시역 견학 △대국민 연금정책 설명회 △대외활동 약자에 대한 돌봄여행 협업 등을 추진한다. 홍승정 국제사이버대학교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초고령사회를 이끌어갈 활동적인 장년 전문가 양성 모델을 만들고, 이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안승철 사회복지법인 한국미래복지재단 동근세상 시설장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정립 국민연금연구원장은 “3각 협업(Co-work)을 계기로 연구원의 대외 활동과 역할을 되돌아보고,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국민연금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병원, 노인 아토피·천식 교육 협약

우리노인복지센터와
돌봄중사자 예방교육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전북특별자치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센터장 김소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북특별자치도광역지원기관 우리노인복지센터(센터장 이경국)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북대학교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전북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광역지원기관 우리노인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인 대상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교육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 요인 악화 등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천식 환자 증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질병관리

청에서는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사업에 '노인천식 예방관리 교육'을 2025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에게 알레르기질환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및 협력 등 노령층의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 이후에는 우리노인복지센터 산하 생활지원사 800여 명을 대상으로 김소리 센터장의 알레르기질환 예방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알레르기질환의 개념과 원인, 관리 방법 등을 소개하고, 일반인들이 흔히 갖는 오해를 바로잡는 시간을 통해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구제역 유입·확산 차단 ‘총력전’

11일 무안 돼지농장 검출
도내 반입·반출 전면 금지
거점소독시설 8곳 추가

전북자치도는 구제역 유입 확산 차단에 따른 총력전을 펼쳤다. 도는 지난 11일 전남 무안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검출에 따라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전남 무안군 방역대 해제 검사 과정에서 돼지농장 2호에서 구제역이 확인되자, 특히 전북도는 구제역 발생 시군으로부터 돼지 반입과 반출을 금지시키고, 사료 차량까지 별도 운영하는 등의 차단방역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전남에서는 지난 3월 13일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4월 11일까지 총 16건(영암 13건, 무안 3건)이 발생했다.



도는 지난 11일 전남 무안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검출에 따라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사진=전북자치도>

기준에는 한우에서만 발생하던 구제역이 돼지로 확산되면서, 전남과 가축이동이 많은 도내로의 유입 위험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구제역 발생현황 : 전남 16건(영암 13, 무안 3) / 소 14(영암 13, 무안 1), 돼지 2(무안 2)

전북자치도는 지난 12일 오전,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전남 발생 시군에서 돼지(생축·분뇨·정액)의 도내 반입·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사료 공급 차량의 교차 출입을 막기 위해 전남 발생 시군에 전담차량 28대를 지정·운영하고, 사료 공급 후 거점소독시설을 2회 방문해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더불어 축산 관련 차량 소독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당초 14개소에서 22개소로 8개소를 확대해 4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11개 가축시장에서는 전남 소의 거래를 금지하고, 시장 출입 전·후 소독 조치도 의무화했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구제역 예방접종 누락 개체가 있는 지 확인하고, 올바른 점종 방법으로 빠짐없이 접종해 주시기 바란다”며 “농장 출입 통제, 축사 내·외부 수시 소독, 축산농가 행사 및 모임자체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친구추천’으로 최대 2만원 쏜다

JB 슈퍼씨드적금 추천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JB슈퍼씨드적금' 상품 '친구추천이벤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추천인으로부터 초대받은 친구가 초대코드를 입력하고 슈퍼씨드 적금에 가입하면 친구와 추천인 각각 캐시백 2천원씩을 선착순 1,000명에게 지급한다.

추천인의 경우 초대친구 수에 따라 1인 최대 2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벤트 기간 중 신규가입고액 중 추천을 통해 1명에게는 '행운의 2달더 골드바 1돈도' 지급한다.

JB슈퍼씨드적금은 전북은행의 공식 캐릭터인 제이비(Jay-B)가 꾸준히 저축하는 고객들에게 부자씨(씨드)를 가져다 주는 콘셉트로 많은 고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전북은행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상품이다.

특히 기본금리 연 3.3%의 정액적립식으로 정상납입 기준 매월 1개의 씨드를 제공하며 랜덤으로 제공된 씨드가 행운의 슈퍼씨드인 경우 연 10.0%의 우대금리를 더해 13.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모바일뱅크 '쓱뱅크' 또는 전북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농협, 2024년도 결산 운영 정기 공개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관내 조합원과 임·직원 등 2,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운영 공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운영공개 자리에는 임인규 조합장 인사말에 이어 전주농협의 박건후 조합원지원실장으로부터 2024년도 결산에 따른 경영전반에 대한 운영공개 순으로 지난 10일, 11일 양일간 전주시 온성교회에서 진행됐다.

전주농협은 예산 및 사업 진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조합원은 물론 지역 주민 누구나 농협 운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임인규 조합장은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상황에서도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임직원의 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의 사업은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전주농협의 미래 성장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조합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운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은 2024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개인부문 시상식을 15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했다. <사진=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서 전북 35명 수상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총국장 김용재)은 2024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개인부문 시상식을 15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날 전북 수상자는 35명으로 우수직원 최적지로 기록을 이어갔다.

특히 진안농협은 사무소 대상수상과 금상 두 명을 포함한 개인수상자 7명을 배출해 전국 단일농협 기준 최다 수상자를 2년 연속 배출하는 기업을 도했다. 또 임미정 과장(진안농협)은 7연속 수상과, 5연속 금상 수상 기록을 이었다.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은 농작물 재해보험, 정책보험을 비롯해 장기보험, 일반보험까지 모든 손해보험 부문에서 농업인 실익과 고객만족 업적을 달성한 우수 농축협과 임직원이 수상하는 상이다.

NH농협손해보험 김용재 전북총국장은 “수상자들은 지난해 대내의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조합원과 농업인을 생각하는 자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올해도 농업인과 농업·농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수소전문기업 육성...5천만원 사업비·패키지 지원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2차 14개 내외 기업 선정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수소산업 2차 전문기업 성장 지원 위한 모집이 시작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는 도내 수소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중점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수소경제 활

성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이를 위해 도는 '기술사업화, 판로개척, 전문가 컨설팅' 등 구성된 패키지형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전북자치도 내 분사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등으로 수소전문기업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된다.

또 수소소 관련 매출실적 보유 △관련 기술력(특허 등) 보유 △수소산업 업종 전환 계획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 '사업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이메일(pho@jbtp.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결과는 접수 마감 후 서류심사 및 대면평가를 거쳐 5월 중 최종 14개 내외의 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도내 수소 관련 기업 14곳을 선정·지원하며, 사업화 매출 증대, 신규 고용 창출, 수소전문기업 전환(예: ㈜아헤스)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김영태 기자

“마른논 썩레질 이앙재배, 친환경 효과 내며 생산성 유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마른논 썩레질 이앙재배가 벼를 재배할 때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기존 무논 썩레질 재배와 비교해 벼 수확량과 단백질 함량 차이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썩레질은 모내기 전 논에 물을 대고 논흙을 부드럽고 고르게 하는 작업이다.

마른논 썩레질 이앙재배는 논흙이 마른 상태에서 썩레질(로터리)과 균평 작업을 한 뒤 논에 물을 대고 벼를 재배하는 기술이다. 기존 무논 재배와 다른 점은 논에 물을 댄 후에는 썩레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이 찬 논에 썩레질을 생각하면 물 빠짐이 개선돼 모내기 후 뿌리 활착이 좋아지고 토양환원을 억제해 메탄가스 발생량도 줄일 수 있다. 또 물 탁함이 덜해 수질오염이 줄고, 농번기에 집중되는



농촌진흥청은 마른논 썩레질 이앙재배가 메탄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이앙 전 무논 썩레질과 마른논 썩레질 모습. <사진=농촌진흥청>

노동력 분산 효과도 있다.

국립식량과학원 재배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마른논 썩레질을 했을 때 무논 썩레질과 비교해 항상 물을 담아두는 상수 담수는 9.3%, 2주간 중간물떼기는 7.1% 메탄가스 발생량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와 충남 홍성에서 마른논 썩레질 현장 실증 결과,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오염원들이 적게 발생했다.

무논 썩레질보다 부유물질은 98%, 질

소는 86%, 인은 88% 줄었다. 일반적으로 뜬 모나 빈 포기(결주)를 줄이기 위해 논에 물 높이를 맞추고 이앙하기 때문에 이앙 전에 물을 빼면 썩레질로 인한 흙탕물이 배출된다.

같은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에서 실시한 현장 실증에서 마른논 썩레질(10a당 511kg)을 했을 때 평균 쌀 수확량이 무논 썩레질(526kg)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단백질 함량도 마른논 썩레질 6.5%, 무논 썩레질 6.4%로 차이가 없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올해부터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8개소에서 마른논 썩레질 기술을 보급한다.

마른논 썩레질에서 가장 중요한 흙고르기와 균평 작업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 대상 기술교육도 지원한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탄소중립 학교 본격화

실천 학교 77개교 선정
최대 1,200만 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단위 학교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2025학년도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급)을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학급 중심으로 150개 학급, 40개교에서 운영했던 것을 올해는 77개 학교, 50개 학급을 선정해 학교 단위에서의 체계적인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 전체가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교육과정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교육이 학교 문화로 자리잡

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운영 규모에 따라 400만~1,200만 원까지 예산이 차등 지원되며, 학급 단위에는 100만 원의 예산이 지급된다.

지원된 예산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탄소배출 감축 활동, 환경교육 교재·교구 구입, 전문가 초청 특강, 탄소중립 실천 대회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지난 11일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급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운영 방향과 세부 계획을 안내했다.

또한 담당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와 컨설팅, 우수사례 나눔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급)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 운영을 통해 학급 단



전북교육청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2025학년도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급)을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전북교육청>

위의 활동을 넘어 학교 전체가 자발적인 친환경 실천 공동체로 전환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로까지 탄소중립 실천 문

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 판소리 완창무대 5주간 공연 마무리

공연 내내 청중 함께 호흡
판소리의 멋에 매료

소리의 고장 전주를 대표하는 판소리 공연 콘텐츠인 ‘2025 전주 판소리 완창무대’가 소리꾼, 고수, 청중들간 호흡이 일치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전주시가 주최한 2025년 전주 판소리 완창무대는 지난달 15일 시작해 지난 12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펼쳐진 동초제 심청가 공연을 끝으로 5주간(매주 토요일)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전주 판소리 완창무대’는 지난 5주간 △박녹주제 흥보가(소리 박가빈, 고수 박종호·신동선) △박봉술제 적벽가(소리 이성현, 고수 송대의) △만정

제 춘향가(소리 박민정, 고수 고정훈·정준호) △박초월제 수궁가(소리 유하영, 고수 김태영) △동초제 심청가(소리 조희정, 고수 조용안·조용복)가 각각 펼쳐졌다.

완창무대가 열리는 공연 내내 참여한 관객들은 ‘얼씨구, 좋다’ 등 다양한 추임새를 넣으며 소리꾼·고수와 함께 호흡하며 무대를 즐기면서 판소리의 멋에 매료됐다.

전주시는 이번 ‘전주 판소리 완창무대’ 공연장을 찾지 못한 시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5주간 펼쳐진 수준 높은 완창공연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완창공연은 유튜브(Woojin Arts TV) 다시보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감상할 수 있다.

/정재근 기자

찾아가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컨설팅 추진

도교육청 14개지역교육청대상
대상자조기발견진단평가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을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 의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모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센터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및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센터별 현황 파악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센터별 자체 운영 점검표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의 운영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컨설팅 요구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실질적인 점검과 자문이 이뤄질 수 있

도록 할 계획이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학교 현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 및 교육을 펼치고 있다”며 “교육 현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환경보건 지킴이’ 제1기 서포터즈 출범

지역민들의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위해 활동하게 될 전북대학교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센터(센터장 김용현·이하 환경보건센터) 제1기 서포터즈가 지난 11일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나섰다.

환경보건센터는 지역 환경보건 실천을 지역에 확산시키기 위해 제1기 서포

터즈를 구성했으며, 이날 발대식을 통해 향후 활동 방향과 세부 실행 계획이 공유됐다.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도민의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비롯해, 지속 가능한 지역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 환경보건센터 제1기 서포터즈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환경보건 관련 정보를 확산하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최성민 기자

군산대, 국가장학금2유형 교부금 38억 확보

전년도 대비 3.85배 증가
장학제도 개선 노력 반영 결과

국립군산대학교는 14일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동결에 따라 ‘국가장학금 2유형 연간 교부금’을 총 3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85배 증가한 규모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장학금 지원 노력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추가 교부금을 지원하는 성과연계형 장

학금 제도이다.

이번 교부금 증가는 등록금 동결, 34억원 규모의 교내 장학금 지원 강화 등 국립군산대학의 적극적인 재정 기여와 장학제도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 받고 있다.

국립군산대학교 오연풍 학생처장은 “2025학년도에는 증액된 교부금을 바탕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학부 학생들이 장학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중심의 지원 정책을 지속 강화 하겠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전북특자도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채용설명회’를 운영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신용보증재단 등 전북특별자치도 내 5

개 공공기관 실무자가 참여하여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됐다.

각 기관의 실무자가 직접 현장 직무와 채용 절차 등을 안내해 취업 준비생들이 기관별로 상이한 채용 방식과 준비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취업 준비 전략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성민 기자



부주의 화재 예방하자!

화재발생 원인1위 부주의

1

담배꽂소는 반드시 불이 꺼졌는지 확인!!

2

화기는 항상 꺼졌는지 확인!!!

3

쓰레기 소각 및 논·밭 태우기 절대 금지!!!

4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전원 차단!!

사소한행동. 습관이 큰 화재 막을 수 있습니다. 실천하고 행동하여 화재 예방 합시다.



정읍시, 등산로 12곳에 해충 기피제 분사기 설치

정읍시보건소가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요 등산로에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확대 설치했다.

시는 최근 △정읍사 달빛 사랑숲 △칠보산 등산로 △조산동 등산로 △내장산 서래봉 탐방로 4곳에 신규 분사기를 설치했다. 여기에 기존 운영 중이던 성황산 등산로 8곳을 포함해 총 12개소에서 기피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충 기피제 분사기는 한 번 분사하면 약 4시간 동안 해충의 접근을 막을 수 있으며, 얼굴과 목을 제외한 피부나 겉옷에 분사하면 썩스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야의 활동 중 감염될 수 있는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주로 4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특히 SFTS를 유발하는 작은소창진드기는 봄철에 활동이 활발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질병은 현재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대응책으로 꼽힌다.

보건소는 시민들에게 야외 활동 시 스킨아웃 착용으로 피부 노출 최소화 △잔디밭에 눕거나 옷을 벗어두지 않기 △해충 기피제 사용 △귀가 후 즉시 샤워 등의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시민 중심 열린 시정 위원회 개최 위촉장 수여

익산시가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을 위해 '익산시 시민참여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 익산시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익산시 시민참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다.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0명의 시민을 비롯해 시의원 2명, 공무원 3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위원회를 이끌 어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또한 향후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위원회 운영의 구체적 방향을 설정했다.

위원회는 2년의 임기 동안 △정책 제안 및 행정 개선사항 자문·심의 △시민 의견 청취 및 수렴 △시민 청구 정책토론회 개최 여부 결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농업인 안정적 창업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본격화

익산시가 농업인의 안정적 창업을 돕고 농소득을 확대하기 위해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에 팔을 걷었다.

익산시는 지역 농업인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농업 구조 전환을 위해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8월 26일까지 총 20회, 회당 4시간씩 진행되며, 농산물 가공에 관심 있는 지역 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실습과 이론을 병행해 운영된다.

아울러 교육을 수료(출석률 75% 이상)하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 후 익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과 창업 기회도 제공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고병원성 AI 발생 '제로'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선제적 예방·농가 동참 결과

매년 겨울철 반복되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지난 겨울에는 정읍시에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가금농가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현재까지 지역 내에 고병원성 AI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지역 축산관계자들과 농가들의 걱정을 덜었다.

이번 성과는 그동안의 가축방역 정책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고 철저한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특히 가금농가들의 적극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AI 발생 차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처음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해 농장 11곳에서 피해를 봤다. 이는 전년 대비 7곳이 감소한 수치로, 살처분된 가금류 역시 전년 239만 마리에서 올해는 179만 마리로 60만 마리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 뒤에는 체계적인 방역관리 시스템이 있었다. 시는 오리농가 동절기 사육제한을 비롯해 종오리농장 방역전담관 운영, 거점소독시설 확대 운영, 철새 도래지 출입 통제와 집중 소독 실시 등 현장 중심의 방역 활동을 펼쳤다.

또한 생산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야생조류류 차단을 위한 농장 차단방역시설 설치와 환경이 취약한 오리농가에 대한 면역증강제와 동절기 난방비, 소독약품 지원 등 세부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했다.

정읍은 정읍천과 고부천, 원평천, 만경강 등 철새도래지가 많아 AI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철새 도래지 예찰과 통제를 한층 강화했으며, 육용오리와 같은 고위험농가를 집중 관리하는 등 예방 중심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한 점도 주요했다.

또 야생조류의 초기 서식지와 항원검출 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해 방역과 예찰 활동을 더욱 강화한 점 역시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다.

이학수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가금농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아직 철새 북상이 끝나지 않은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차단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민생 안정·경제 회복 총력 대응

민생안정대책 확대 회의

하수도 요금 감면 등 구체화

익산시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14일 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국소단장,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안정대책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모두 46건의 부서별 중점 추진 과제가 공유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복지 강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주거·임차인 안정 지원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농업재해 대응 체계 구축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 등 시민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시는 취약계층 보호와 생활불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복지·경제·환경



익산시는 14일 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국소단장,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안정대책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사진=익산시>

등 전 분야에서 민생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하수도 요금 감면, 상하수도 자동납부 할인제, 외식업소 환경개선, 농어업 재해 대응 체계 구축 등 촘촘한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청년주거비 지원, 공공청사 편의시설 확충, 지역서점 활성화 등 지역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미룡동 고분군 발굴·시굴 조사 추진

군산 마한문화 역사 확인

군산시가 마한 역사의 비밀을 간직한 '군산 미룡동 고분군'을 이달부터 발굴 및 시굴 조사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군산 미룡동 고분군’은 군산시 서쪽을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월명산 산줄기에 위치하며, 해발 40~45m의 능선을 따라 고분과 주거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번 조사는 2022년부터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작된 마한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발굴조사이다. 2024년까지 목관묘 40여 개, 옹관묘 30여 개, 주거지 7개소, 화제유구 1기가 발굴되었다. 유구(遺構)는 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자취를 말한다.



특히 화제 유구는 마한의 매장 의례(의식)와 관련된 것으로, 마한유적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매우 가치가 높고, 추후 마한의 매장 의례 복원에 있어 핵심 유적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백제와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흑색마연토기' △금강 하류에

서 처음 출토된 '직구장경평저호(제사용 토기)' △해양 교류를 상징하는 경배 등 다양한 토기가 출토됐고, 환두대도·철부·철정 등 다수의 철기 유물도 발견되어 해양 문물교류를 통해 세력이 융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영유아 우리밀로 건강한 ‘한 끼’

영유아 식단 우리밀 무상 공급

어린이집·유치원 총 40개소 전달

정읍시가 어린이 식단에 우리밀 제품을 공급하며 국산 밀 소비 촉진과 지역 농가 지원에 힘을 보탰다. 시는 지난 11일, 정읍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총 2240kg의 우리밀 제품을 무상 공급했다.

이번 사업은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밀 소비를 확대하는 동시에, 영유아의 성장발육을 돕고 건강한 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다. 우리밀 제품은 안전성과 영양 면에서 뛰어나 아이들의 급식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집 36곳과 유치원 4곳, 총 40개소에 부침가루, 국수, 밀쌀 등

총 22톤의 우리밀 제품이 전달됐다. 공급된 제품은 각 기관의 식단표에 따라 다양한 요리로 조리돼 아이들의 식탁에 오를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급을 통해 우리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우리밀을 재배하는 농가와 가공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콩당보리축제’20주년 맞다

특별한스무살4월24일 개막

군산이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청보리밭에서 축제의 향연을 준비하며 상춘객들의 발길을 기다린다. 주인공은 올해 스무 살이 된 '군산콩당보리축제'.

오는 24일 미성동 보리밭 일원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인 '군산콩당보리축제'는 올해 더욱 다양한 체험과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쌈이 떨어지고 보리는 여물지 않아 수확할 수 없어 허기진 배를 움켜쥐던 시기 가장 든든한 먹거리였던 ‘보리’는 세월이 지나 인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2005년 곳곳에서 우리 전통 먹거리 보리를 키우고 생산해내던 농민들에게 위기가 다가왔다. 정부가 2012년에 보리 수매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듣자 군산시는 농가소

독 불안정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전국 생산량의 50%에 육박하는 한창쌀보리를 알리고 자 지리적표시 제49호로 등록하고 판로 확대를 위하여 미성지역 농민 중심의 축제를 시작했다. 바로 ‘군산콩당보리축제’이다.

군산시는 ‘군산콩당보리축제’의 스무 살을 기념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특별한 잔치를 치를 계획이다. 주제는 ‘콩당보리 20주년, 두근두근 스무 살’이며 장소는 미성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이다.

축제 기간에는 볼거리, 먹거리 등 6개 마당, 50여 개의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파랑게 펼쳐진 보리밭 사잇길을 걸으며 추억을 담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아련한 추억을 담은 농촌 체험 등으로 꾸며져 최고의 가족 나들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시민이 안심하는 정읍, 위험요소 사전 차단

14일~6월 13일 총 61일간

정읍시가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61일간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에 나서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범국가적 안전사고 예방 활동으로, 시는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노후 건축물과 다중이

용시설, 교량, 문화·체육시설, 재난 취약시설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공시설 전반이다.

이번 점검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기, 소방, 가스, 도목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합동 점검단이 투입된다.

전문성을 갖춘 점검단은 현장에서 시설물의 결함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안전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수와 보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민관합동 안전관리 총력전

집중안전점검 추진

익산시가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61일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총 130개소로 △교량·육교 등 교통시설 24개소 △간척시설 78개소 △숙박시설 2개소 △복지시설 4개소 △다중이용시설 1개소 △판매시설 1개소 △어린이이용시설 1개소 △기타시설 19개소다.

점검은 토목,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통해 이뤄진다. 관계부서 공무원과 시설관리 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단재장이 참여하는 특별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결함이나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점검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철저한 후속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2026년 국가 예산확보 ‘본격’

군산시가 4월 한 달을 ‘부처방문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부서별로 관계 부처를 방문하여 신규사업 설명과 협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별로 중점 메시지와 설명 자료를 촘촘히 보강하여 설득력 있는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2026년 국가 예산확보 로드맵'에 따라 예산편성 전 주기에 걸쳐 단계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9월 시청 4층 상황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국장급 간부와 기획예산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 예산확보를 위한 부처 단계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부처 협의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완주 이서 천주교 유적 국가사적 심사

남계리 ‘첫 순교자 유해’ 국가유산청 현지지정심사

완주군이 이서면 남계리 천주교 유적의 국가사적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남계리 천주교 유적을 방문해 현지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는 국가사적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현장에서는 유적의 역사적 의미와 학술적 가치, 원형보존 및 경관적 가치, 장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사 현장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윤수봉 전북도의회 행정운영위원장, 권요안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 부위원장, 이순덕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 이경애, 서남용 군의원, 국가유산청 및 전북 특별자치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천주교 전주교구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현장 심사는 장기재 완주군 학예연



14일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남계리 천주교 유적을 방문해 현지심사를 진행했다. <사진=완주군>

구사의 유적에 대한 국가사적으로서의 가치 보고와 심사위원들과의 질의응답 후 평가 회의를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완주 남계리 천주교 유적’이 위치한 초남이성지는 조선 후기에 천주교 박해 속에서도 지역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며 형성한 신앙공동체를 바탕으로 호남지역 천주교 확산의 중요한 거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에는 1791년 신해박해 당시 순교한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 윤지충, 권상연, 1801년 신유박해 당시 순교한 윤지현의 유해와 백자사발 지석이 출토돼 국가사적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가사적 지정 여부는 이번 현지심사 결과와 문화유산 위원회의 심의회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완주=김병곤 기자



순창군청 소속 소프테니스팀 윤형욱(좌) 김병국(우) 선수가 최종 선발전에서 복식 부문 2위에 올라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사진=순창군>

순창군청 소프테니스 선수, 태극마크 단다

복식 윤형욱·김병국 선수 2위 입상 국가대표 선발

순창군청 소속 소프테니스팀의 윤형욱 선수와 김병국 선수가 '2025 소프테니스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탁월한 기량을 선보이며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선발전은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모인 최정에 선수들이 국가대표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윤형욱·김병국 선수는 복식 부문에서 뛰어난 조직력과 안정된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복식 부문 최종 2위에 올라 당당히 국가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발로 윤형욱 선수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김병국 선수는 2023년 이후 두 번째로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특히, 두 선수는 지난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함께 출전해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는 대표적인 소프테니스 '황금 콤비'로, 이번 선발전에서도 한 치의 빈틈 없는 호흡과 뛰어난 기량으로 대표 선발의 영광을 거머쥐었다.

순창군청 소프테니스팀은 다수의 우수 선수를 배출해 오며 '소프테니스 명가'로서의 위상을 견고히 해나가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농특산물 밀키트 요리대회’ 열린다

춘향제 때 농특산물 축제 일환 지역 농특산물 실용 요리 개발

남원시는 '남원시장배 전국 남원 농산물 밀키트 가족 요리경연대회' 참가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95회 춘향제(2025. 4. 30. ~ 5. 6.) 기간 중 열리는 제2회 농특산물 축제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경연대회는 남원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밀키트 상품 개발을 주제로, 전국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요리 대회로 기획됐다.

요리에 관심있는 4촌이내 혈족으로 구성된 가족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팀당 인원은 2명으로 제한되나, 초등학생 이하 가족 구성원은 2명까지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

본선 진출팀에는 요리 재료비 20만원이 지원되며, 재료는 남원 농특산물이 2가지 이상 포함돼야 한다.

총 상금 규모는 220만원으로, 대상 100만원, 금상 50만원, 은상 30만원, 동상(2개팀) 20만원이 시상금으로 수여된다.

참가 신청은 22일 오후 6시까지 남원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alrud1004@korea.kr)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수원시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협약

협력사업·마을기금 조성 교류

완주군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단장 최현주)과 수원도시재단마을자치지원센터(센터장 김용승)가 마을만들기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협약식은 최근 비봉우리공두부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추진 △마을별 재원확보 및 마을기금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추진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협력사항 등이다.

양 기관은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김병곤 기자

남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절차 착수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

남원시 시장 최경식은 야간·공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일 지역 내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한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알린 바 있다. 이번 공모는 실제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서를 발급받은 후 야간 및 공휴일 소아진료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은 단순한 공모를 넘어, 남원시가 시민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기간 준비한 결과물이다.

시는 지속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은 물론, 보건복지부 등 상위기관을 수차례 방문하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기준과 지정 개정을 적극 건의했고, 이 과정에서 남원시의 지역 여건이 반영된 개정 지침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지정 추진이 가능해졌다.

지정 절차는 이달 7일부터 21까지 2주 이상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해당 기간 내 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보건소의 자체 심사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정된 의료기관은 관련 기관 보고 후 보건복지부 최종 승인을 받아 운영을 시작한다. 남원시는 2025년 6월 2일 개소를 목표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농어촌공과 일괄 위·수탁 협약

14일 남원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괄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일원 7.3ha 규모 부지에 임대형 스마트팜 4ha를 포함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의 실시설계부터 공사발주, 공사감독, 감리 및 문화재 지표조사, 재해영향성 검토, 농지전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산성 혁신과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 육성지구의 핵심 시설인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농업의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은 기존 단기 임대형 스마트팜의 3년이라는 짧은 임대기간을 보완해 최대 10년(5+5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는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 청년농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출 것으로 보인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감염병 예방 모기 유충구제 하수구·물웅덩이 등 집중 방역

완주군이 여름철 극성을 부리는 모기 개체수 감소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모기 유충구제활동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4일 완주군은 정화조, 하수구, 물웅덩이 등 물이 고여있는 주요 서식지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관내 120개 마을 개인 정화조 3,893개소를 주요 대상으로 지정해 유충구제제를 배부하고, 주민 자체 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에 대한 순회점검 및 서식지 제거 홍보 등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모기 유충 서식지 신고센터(보건소 감염병대응팀 290-3044)를 운영해 군민 제보가 있는 곳에도 신속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하절기 각종 위생 해충 출현에 대비해 등산로 및 공원 등에서 운영 중인 기피제분사기 18대 및 해충유인살충기(포충기) 288대 가동 작업도 완료했다.

이재연 보건소장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으로 모기 개체수가 급증하고, 각종 위생 해충 출현으로 감염병 발생에 매우 취약해졌다”며 “앞으로도 유충구제 등 방역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병곤 기자

강현욱 휴택산업 대표, 순창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순창군은 14일 (주)휴택산업의 강현욱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강현욱 대표를 비롯해 남부대학교 최승식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 했다.

강현욱 대표는 인명구조함,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의 제조와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주)휴택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휴택산업은 2020년 7월에 설립돼 광주 남부대학교 산학협력센터에 소재하고 있다.

비록 순창이 고향은 아니지만, 강 대표는 고등학교 선배인 최승식 교수로부터 순창을 소개받은 것을 계기로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2024년 제1회 김장체합·나눔 페스티벌을 응원하며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개최된 제2회 순창 섬진강 트레일레이스를 응원하며 2년 연속 기부를 이어가며 순창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실천해오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동행페스타, ‘바가지 없는 춘향제’ 호소

상가밀집 지역 대대적 홍보 소상공인 대대적 동참 기대

남원시가 제95회 춘향제를 앞두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동행 페스타’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9일,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강상남)와 남원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사장 전제완)은 광한루원 인근 상가 밀집 지역에서 ‘동행 페스타’ 참여 안내 및 할인행사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이번 홍보 활동은 춘향제 기간 진행

되는 ‘동행 페스타’의 지역 내 인지도 확산과 시민·관광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회 조직을 중심으로 홍보했다.

현재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소매점 등 약 70여 개 업체가 ‘동행 페스타’ 참여를 확정했으며, 참여 업체는 춘향제 기간에 할인 또는 추가 서비스 혜택을 자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 업체는 ‘동행 페스타 참여업체’ 표식을 부착해 시민과 관광객이 손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역 상권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

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번 동행 페스타의 목표”라고 전했다. 또한 남원시는 행사 기간 ‘물가안정 점검반’과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당요금을 사전에 예방하고 바가지요금 없는 ‘착한 축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춘향제를 맞아 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동행 페스타’ 참여업소에서 다양한 혜택과 함께 합리적인 소비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참여 업소 정보는 남원시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양지천 사계절’ 사진으로 담는다

제1회 사진 공모전 개최 입상작 순창군 홍보 활용

순창군에서는 ‘사계절 양지천에 반하다’라는 주제로 2025년 제1회 순창군 양지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 공모전은 ‘사계절 양지천에 반하다’라는 주제로 순창을 양지천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진행되며 꽃잔디, 수선화, 튼싹, 벚꽃, 야간경관 등 양지천과 경천의 봄꽃에 대한 내용으로 참신하고 아름다운 풍광 등 순창군의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주제면 모두 해당된다.

공모전은 오는 8월 2일부터 8월 29일까지 접수가 진행되며, 지역과 연령에 제한 없이 순창군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양지천 일대에는 꽃잔디와 튼싹, 수선화 등 봄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어, 참가자들이 사진에 작품 활용을



순창군에서는 ‘사계절 양지천에 반하다’라는 주제로 2025년 제1회 순창군 양지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순창군>

준비하기에 최적의 시기다.

참가 희망자는 순창군청 및 순창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방문(순창군청 문화관광과)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대상 1명(팀)에 상패와 상금 200만원이며, 최우수상은 1명(팀) 100만원, 우수상 3명(팀) 각 50만원, 입상

35명(팀) 각 10만원 등 총 4개 분야 40명(팀)에 8백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입상 결과는 9월 중 심사를 통해 순창군 홈페이지와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입상작은 다양한 행사 및 홍보활동, 공식 SNS 등에서 순창군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 민선 8기 공약이행 ‘가속페달’

올 1분기 공약이행률 65.2%

완주군이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14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조기완수를 주문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총 112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이행률을 면밀히 분석했다. 2025년 1분기 기준 공약

이행률은 65.2%이며, 이행 완료사업 73건, 추진 중 사업은 39건 등이다.

유 군수는 “민선 8기 3년 차 마무리 시점을 맞아, 부진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분석을 실시 후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유 군수는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및 전북도 일제출장 결과를 보고 받고 “소극적·부정적

사업의 경우 도와 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 타당성 등을 보완해 중앙부처 중점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완주군 인구 10만 달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전 군민이 함께 인구 10만 시대를 맞아 완주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담은 새로운 군정비전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완주=김병곤 기자



전주교대 졸업생 일동, 대학발전기금 1,100만원 기부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 동문인 전주 사범학교 11회 졸업생(김경자, 최정선, 박선자, 이달희, 김광세, 백병기) 일동이 졸업 66주년을 기념하여 대학발전기금 1,100만원을 기부했다. 지난 11일 전주교육대학교 총장실에서 진행된 기탁식에서 졸업생 일동은 “모교에서 받았던 교육이 삶에 큰 힘이 되어 이에 보답하는 의미로 이번 기부를 준비했고, 앞으로도 모교와 후배들을 응원하는 동문으로 남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성민 기자



진안군청 간부 공무원 7명,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진안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준성)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노금선, 건강증진과장 국은희, 용담면장 노기환,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농촌협력과장 오재열,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안전면장 차재철 등 간부 공무원 7명이 함께 모은 장학금 8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 참여한 노금선 소장은 “진안군 아이들의 꿈을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이리배산라이온스클럽, 장학금 익산 자격 미달 청소년 긴급 지원

이리배산라이온스클럽(회장 백종석)은 14일 익산시 저소득 가정 청소년 3명에게 각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지원받은 청소년들은 지난해까지 익산시 청소년희망나눔프로젝트의 장학금 수혜자였으나, 올해 선정 기준에 미달해 장학금 지원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이에 이리배산라이온스클럽은 학업 지속이 어려워질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긴급하게 도움을 손길을 내밀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자원봉사센터-몽골, 의료협력 MOU 체결

양국 주민복지의료환경 사회발전협력강화목적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정석)는 지난 13일 몽골 우문고비 주 달란자드가드시(시장 척트 데네르지)와 의료환경 개선 및 주민 건강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사회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전북자원봉사센터와 몽골 달란

자드가드시는 해외의료봉사단 운영과 관련한 행정적 지원과 의료인 참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자원봉사센터는 올해 몽골 달란자드가드시를 봉사 대상으로 선정, 오는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현지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 처방, 보건교육,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봉사단에는 전북 4대 의약단체와 의료기사연합회 등이 함께 참여한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원봉사센터는 몽골 우문고비 주 달란자드가드시와 의료환경 개선 및 주민 건강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북자원봉사센터>

정태두(주)성실 대표, 전주시에 마스크 8만 장 기부

감염취약시설 등에 배부

정태두(주)성실 대표가 14일 전주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주시에 KF-94 마스크 8만 장을 기부했다. 이번에 기부받은 마스크는 환자와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KF-94 마스크로, 시는 전지역 감염취약시설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주)성실은 KF-94 마스크와 성인복, 골프웨어까지 생산하는 마스크 제조 및 완사입 생산 전문기업으로, 이 기업은 지난달에도 전북교육청에 마스크를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부된 마스크는 호흡기 감염병에 취약한 분들을 위하여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14일 매일유업 상하농원과 고창청정유기농영농조합법인이 유기농 우유 산물 피해지역 이웃들을 위해 기탁했다 <사진=고창군>

매일유업(상하농원)·고창유기농조합 합동 기탁

산불피해 이재민들에 4천만원 상당 우유 전달

전북 고창군 소재 기업들이 산불피해 이재민 돕기에 앞장서며 지역을 넘어선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매일유업 상하농원과 고창청정유기농영농조합법인이 총 4000만원 상당의 유기농 우유를 산물 피해지역 이웃들을 위해 기탁했다.

이는 전북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피해 이재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는 특히 건강한 먹거리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작게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진되었다. 한편, 고창군은 향후에도 지역 내 다양한 단체 및 기관과 협력해 재난 대응과 복지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백준규 기자

익산 백제왕궁박물관 “문화유산 그려보세요”

익산시 백제왕궁박물관은 오는 5월 10일 열리는 ‘제15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의 참가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번 대회는 유치부와 초등학교 저학년부(1~3학년), 고학년부(4~6학년)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주제로 백제왕궁박물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익산시의 10개 자매·우호 도시인 경주시, 미국 컬버시, 중국 진강시, 일본 돈다바야시시 등의 학생들이 우편으로 작품을 보내 참여하는 ‘국제교류 부문’도 새롭게 신설돼 의미를 더한다. 참가 신청은 백제왕궁박물관 누리집(www.iksan.go.kr/wg)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누리집 또는 전화(063-859-4636, 4795)로 확인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장수지역 농협 임직원, 고향사랑기부금 1,200만 원 기탁

장수군은 NH농협 장수군지부(지부장 김성수),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 장계농협(조합장 박점용) 등 장수지역 농협 임직원들이 장수군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 1,200만원을 장수군에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장수지역 농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것으로, 지역사회가 발전하기를 바라며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한 의미 있는 나눔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군산 조춘동 지사협, 1박 2일 ‘오감 만족 가족 캠프’

군산시 조춘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황순정)가 관내 저소득 가구 11가족 40명에게 ‘봄날의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지사협은 조춘동 특화사업인 우리 가족 1박 2일 추억 만들기 ‘오감 만족 가족 캠프’ 특화사업을 지난 12일~13일 1박 2일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족 캠프에 참가한 부모와 자녀들은 국립청소년바이오생물센터와 연계하여 스가족 향수 삼각자뽕·테라리움 만들기 스가족 오락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오감 체험활동을 즐겼다.

/군산=지송길 기자

(주)뉴텍 유영우·김명호 대표, 정읍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주)뉴텍 유영우·김명호 대표가 지난 11일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지역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정읍의 발전을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나눔으로, 고향에 대한 애정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기부에 참여한 유영우 대표는 “이번 기부가 더 나은 정읍을 만드는 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생활 속 작은 실천

E S G 실천

불필요한
이 메일 삭제

일회용품, 현수막
없는 행사 운영

종이없는 회의
활성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사무실 내
일회용품ZERO

〈一事一言〉



윤석열 파면에 배아픈 일부 언론의 놀부 심보(2)

송요훈
전 MBC 기자

박근혜 탄핵 때는 반성하는 척 사죄소라도 하더니 윤석열 탄핵 국면에선 방귀 끼고 성을 낸다. 그러면서 개헌론에 불을 지핀다. 묻고 싶다. 보수정당이 달성한 '3 연속 감옥행-2연속 탄핵' 대통령 배출이라는 대기록이 대통령제 탓인가? 그런 대통령은 왜 보수 정당에서만 나오는 건가?

보수정권이 게걸스럽게 배를 채우고 밥상을 어지럽히고 물러나면 진보정권이 설거지를 하고 새로 밥상을 차리는 내내 '배짱이' 보수정당은 보수언론과 합동으로 뒤에서 횡방을 놓고 악담을 해대며 국민의 피로도를 높여 정권을 넘겨받아 밥상을 어지럽히고... 그런 악순환이 대통령제 때문인가? 윤석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나라의 보수정당야말로 '폐약질을 일삼는 범죄자 집단'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조선일보가 개헌론에 불을 지피는 건, 윤석열의 내란을 잊어달라는 거다.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법치를 무시한 윤석열의 분탕질을 잊어달라는 거다. 김건희도 있고 디올백도 있고 주가조작도 잊어달라는 거다. 이태원 참사도 있고, 채 상병 사건도 있고, 부산 엑스포도 있고, 의료 대란도 있고, 대과 한 단에 '875원'도 있고, 다 잊어 달라는 거다.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고, 대선을 바로 앞둔 지금 상황에서의 '개헌론'은 기억을 지우는 지우개로 유권자의 기억에서 지난 3년을 지우겠다는 거다. 나도 개헌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선일

보가 이른바 정치 원로들까지 동원하여 열심히 불을 지피는 개헌론은 유권자들에게 '윤석열의 시간'을 망각하게 하는 기억상실증 마약을 살포하여 국민을 개 돼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어서 두 번째 사실. '현재도 비판한 민주당의 전횡과 횡포'... 제목이 가관이다. 현재의 결정문에 있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를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된다고 인식해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 같다"는 구절을 그대로 옮겨와 현재도 민주당의 전횡과 횡포를 비판했다.

인터뷰도 그렇지만 남의 글에서 일부를 인용할 때는 전체적인 맥락이나 글의 취지를 왜곡해선 안 된다. 그 또한 언론의 윤리다. 조선일보 사설이 인용한 현재 결정문의 구절은 윤석열의 주장을 그대로 적은 것이고, 보수성향 재판관의 주장을 결정문에 반영하고 그들의 체면을 살려줌으로써 현재가 이른바 '5대3의 교착'에 빠지는 파국을 막고 가능하면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읽힌다.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하고 현재재판관들이 심판정을 떠날 때 문형배 현재소장 대행이 김형두 재판관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는데, 아마도 보수성향 재판관들을 설득하여 전원일치 결정을 이

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기에 그랬을 것이다. 현재의 결정문에서 조선일보가 인용한 구절이 있는 단락을 빼면 문맥은 더 매끄러워지고 내용은 더 명료해진다.

자칭 '일등신분' 조선일보가 그럴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현재가 민주당의 전횡과 횡포를 비판했다고 하는 건, '윤 대통령이 없는데 이제 이 나라에서 가장 통절하게 반성하고 자책해야 할 사람은 이 대표'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이고 '민주당 일각은 마치 점령군이 나 된 듯이 환호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혐오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에게 '점령군 행세'가 아니라 국가적 불행을 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훈계를 한다. '민주당이 국익을 우선하는지 자신들의 권력욕을 앞세우는지' 지금부터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겁을 준다. 마치 불을 끄고 나니 방화범이 불쑥 나타나 소방관을 야단치고 훈계하는 것 같다. 그런 걸 일컬어 적반하장이라고 한다.

무지와 무능, 독선과 불통으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건 대통령 윤석열이다. 지지율이 10%를 겨우 넘는 '정치적 사망'의 지경에 이르자 저 살자고 군대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로 나라를 축대발로 만든 것도 윤석열이다. 12.3 계엄의 밤에 계엄은 실제상황이고 국회로 와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한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고

담을 넘어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 국회의 권능으로 계엄을 해제한 건 민주당 등 야당의 국회의원들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출범의 일등공신이고 윤석열 탄핵을 막으려고 끝까지 헌법재판소를 흔들 어대던 조선일보는 매를 들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야단치고 있다. 하나님도 자기한테 까불면 죽는다는 전광훈이라는 목사가 설쳐대는 이 나라에선 사탄이 천사를 야단치는 물상식과 물염치가 심심찮게 벌어진다.

조선일보의 확증편향이 중증으로 깊어지고 있다. A4 용지로 100쪽이 넘는 현재의 결정문에서의 도에 맞는 몇 문장을 가져와 입맛대로 해석하여 기사에 인용하는 것은 수많은 사실 중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편향된 취사선택이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막무가내 아전인수이며 확증편향이고 언론윤리 위반이다. 조선일보는 대체 왜 그러는 걸까? 거짓으로 쌓은 조선일보라는 거대한 성이 무너질까 두렵고 불안하여 그럴 것이다. 윤석열 탄핵 다음 날의 조선일보 지면에선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암 환자의 심리적 공황이 행간을 비집고 나오고 있었다. <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만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윤석열에 대한 특혜, 사법부 신뢰 깨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하지만 정작 국민은 법정에 선 피고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불허하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범죄 혐의자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한 결정은 사법부 스스로 법과 정의의 수호자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귀연 판사가 이끄는 형사25부의 일련의 결정은 공정성보다 특정 피고인에 대한 배려에 경도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을 석방한 초유의 결정은 법조계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천대원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조차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이는 명백히 상식과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행위다.

법정 촬영 불허는 그 파장을 더욱 키웠다. 전직 대통령들이 형사재판을 받을 때마다 법정 출석 장면은 공개돼 왔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 4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그 사례다. 심지어 이명박은 '국가 위신'을 이유로 촬영을 반대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반면, 윤석열만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대법원 규칙의 정신을 외면한 채 예외를 인정받았다. 오로지 한 사람만을 위한 특혜, 그것이 사법 정의의 이름으로 이뤄졌다는 현실은 국민에게 참담함을 안긴다. 법원이 윤석열의 법원 출입을 지하주차장으로 허용한 것 역시 '안

전상의 이유'라고 하지만 재판과 언론 노출을 동시에 피하도록 한 일련의 조치들이 결국 하나의 퍼즐처럼 맞물려 특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결코 단순한 의전 문제라 볼 수 없다. 이는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자해적 결정이다.

해의 주요 민주국가들에서 이러한 판단이 내려졌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법외폭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미국에서는 탄핵이나 징계, 해임 대상이 된다. 일본에서라면 국민이 직접 법관 탄핵을 청구하거나 최고재판소 판사에 대한 심사를 통해 해임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판사에 대한 견제 장치는 사실상 전무하며 입법부 역시 사법 권력의 독주를 방지해 왔다. 국회가 사법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결과와 이 같은 사법 특권으로 이어진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다. 법정에선 피고인이 누구든, 헌법과 법률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법원이 스스로 그 원칙을 무너뜨릴 때 국민은 법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사법부는 존립의 근거를 잃는다.

이제라도 사법부는 대오각성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오판이 아니다.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하며 정의를 외면한 결정이다. 법은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며 그 어떤 권력자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사법부는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대답이 사법부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문화재열전



과립리 석불입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불교조각, 석조, 불상
-지정일 - 1987년 4월 28일
-시대 - 통일신라시대
-소재지 - 남원시 과리길 19-22 (이백면)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전북뉴스 4444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권) 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연호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872-0308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JBT

전북타임스신문

당신의 하루를 여는 신뢰의 뉴-스,
전북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 5층 대표전화 063)282-9601 팩스 063)282-9604

지금 떠나야 할 4월 여행지 전북 산야에 피어난 봄의 정취

“소소하지만 확실한 봄의 행복, 전북 여행에서 찾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완연한 봄을 맞아 테마가 살아 있는 감성 봄 여행지 4곳을 소개했다. 유채꽃이 물든 들녘, 파도와 노을이 어우러진 해변캠핑장, 생태가 살아 숨 쉬는 숲길, 그리고 전통이 깃든 건강한 약차 한 잔의 여유까지. 감성과 힐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전북만의 특별한 여행지를 만나보자.



장수 뜬봉샘생태공원



순창 유채꽃밭



정읍 쌍화차커뮤니티라운지



고창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자연의 싱그러움과 전통의 깊이 유채꽃·바다·생태숲·약차의 향기

■ 샛노란 봄의 물결,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유채꽃밭

전북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에 위치한 '채계산 출렁다리 유채꽃밭'은 봄바다 수채화 같은 노란 물결이 펼쳐지는 명소다. 231ha 규모의 넓은 들만에 유채꽃이 만개하며, 봄바람에 하늘 춤을 추는 꽃밭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환히 밝힌다.

'경관보전 직불사업'을 통해 조성된 이 유채꽃밭은 출렁다리와 어우러져 색다른 풍경을 연출한다. 트레킹, 사진 촬영, 힐링 산책에 모두 적합한 이곳은 순창실랜드, 장군목유원지, 용결산 하늘길 등 인근 관광지와 함께 하루 코스로 즐기기에 제격이다.

■ 바닷바람과 노을이 머무는 고창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캠핑장

고창 '동호 국민여가캠핑장'은 총 30개 규모의 캠핑 사이트가 소나무 숲 아래 아늑하게 마련되어 있어, 여유롭고 조용한 해변 캠핑을 즐기기에 적합하다.

지난달 1일부터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재개장에 많은 캠핑족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캠핑장에선 해변 산책은 물론, 해질 무렵 바다 위로 드리워지는 붉은 노을을 감상할 수 있어 로맨틱한 분위기도 가득하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진다면 시원한 파도소리와 함께 힐링 캠핑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장수 뜬봉샘 생태공원

'뜬봉샘 생태공원'은 급강의 발원지인 뜬봉샘에서부터 시작되는 물길을 중심으로 조성된 생태 체험 공간이다.

이곳은 2024년 11월, 환경부와 문체부로부터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장수군은 2025년 3월부터 시티투어, 생태해설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생태관광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하늘다람쥐, 담비 등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환경 속에서, 봄날의 싱그러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장수누리파크, 논개사당, 방화동가족휴가촌 등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하여 봄날 자연의 숨결을 한껏 느껴볼 것을 추천한다.

■ 정읍에서 만나는 깊은 약차의 향기, 쌍화차 커뮤니티라운지

정읍시는 오랜 세월 약재의 집산지로 명성을 얻으며, 그에 기반한 쌍화차 문화도 자연스럽게 발전해왔다. '쌍화차 커뮤니티라운지'에서는 다양한 약재들을 직접 보고, 쌍화차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도 가능하다.

환절기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는 쌍화차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따뜻하게 해준다. 정읍의 대표적인 힐링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는 이곳에서 쌍화차를 오감으로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김영태 기자

제2회 웰다잉 삶의 엔딩을 코디하다 인식향상 공모전

■ 목적 : 인생의 참 행복과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는 웰다잉 인식 향상을 도모

■ 응모자격 : 고창거주 만19세 이상 일반인

■ 공모접수방법 : 방문 접수

■ 문의 : TEL. 063-564-1001

시상내역

구분	인원	상금
대상	1명	50만원
최우수상	2명	30만원
우수상	3명	20만원

표현주제

나에게 웰다잉이란?
나와 가족의 웰다잉 이야기

출품분야 (1인 1부문 출품)

- 시, 산문, 수필 부문(200자 원고지 10장 이내)
- 포스터 부문(4절지 기준)
- 영상 부문(1분 이내 숏폼)

공모일정

접수기간 : 4월 24일 까지
수상자 발표 : 4월 30일

새고창장례식장

단, 출품된 작품은 반환되지 아니하며 저작권은 공모처에 귀속됩니다.